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9.13.(제3771)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고 난

우리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 우리를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은 기쁨을 통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픔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주님께서서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줄을 드리우시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흔들릴수록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거센 바람은 화려하고 안락한 정원을 무너뜨리고
정교하게 가꾸어진 그 모든 아름다움을 흐트러뜨리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알맞게 조율하셔서
주님의 밝은 빛이
이 완고한 활과 같은 우리를 길들여 주소서.

- 조지 헐버트 (George Herbert)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6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례 송...524장(1,3절)...다 같 이 ※영 광 송.....3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 15:6)

※경 배 찬 송.....15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내 생각만 의지했
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18번(시편 31편)...다 같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 도.....김기석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분반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이지혜 집사

구 약 | 시 편 40:1-2

신 약 | 요 한 복 음 5:1-9

찬 양....하나님을 찬양하라....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물이 끓어야 밥이 됩니다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남녀 선교회 월례회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예 배(교회)	87	영 아 부	6
주 일 예 배(가평)	245	유 치 부	12
		유 초 등 부	24
수 요 성 서 연 구	48	중 · 고 등 부	20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3	청 년 부	16
금 요 성 령 집 회	52	예 수 소 망 반	17
		생 명 의 삶	11
금요실시간방송예배	28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합	계
	393		78

현 금			
주 일 현 금	1,830,400	감 사 현 금	2,790,000
월 정 현 금	500,000	창립70주년현금	3,240,000
십 일 조	5,020,000	특 별 현 금	350,000
합 계 13,730,4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9월 16일(수)10:30, 손민승 목사

사무엘상·하 3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4장 1-15절
• 금 주 기 도 : 황영진 권사
• 다음주기도 : 황인선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9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장춘기 문정이	정미애 이경희A 김성욱 이현희 안현수 심수현
안내위원	최명애	
강단헌화	서태희 이진숙 최난주 (최명수 김다유)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전교인 수양회)

“이어지는 성도 지어지는 성전”

구 약 시 편 133:1-3

신 약 에 베 소 서 2:19-22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할 때, 그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건물과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건물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건축물로 생각해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가가 있어야 합니다. 도면을 그리고 건축의 계획을 세워서 땅을 다지고 기초를 놓고 기둥과 벽돌을 쌓아가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시멘트가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벽돌과 장식품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의 목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의 건축가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청사진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교회를 세워가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건축가요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도 그 안을 확대해 들여다 보면 놀라운 건축가의 예술적 감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벽한 건축 기술과 미적 감각을 가지시고 지금 이순간에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이루는 재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재료들이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전에는 황량한 땅에 버려진 돌덩이, 모래알갱이 같던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기시고 벽돌로 구으셔서 한장 한장 교회를 짓기 위한 귀한 재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들 위에 저희들을 재료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으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언제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건축물로 보았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1,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뭐라해도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예배드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땅을 지어 싸움박질 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교회의 재산과 몸집만을 불리려 혈안이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과 구하고, 정말 이곳이 나의 기도처가 되어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쳐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굳건히 세워져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18-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며 영혼구원과 제자 세우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교인 수양회를 맞아 특별히 마음에 강하게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의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씀과 22절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보았던 앞 구절의 화평과 평안을 의미하는 에이레네를 한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말씀을 오늘 꼭 마음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씀은 성도간의 교제를 뜻합니다.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벽돌 한장으로, 너는 나무 기둥으로, 누구는 수도관으로, 누구는 현관문으로, 다 다른 존재들이지만 이것이 연결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간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다릅니다. 세상의 교제는 내가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고개 돌리면 끝이지만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의 교제는 나와 너가 서로 끊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 운명공동체인 것을 인식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며 서로를 소중히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소중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가 예뻐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젖 달라고 보채는 아기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라길 원하십니다.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자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신앙의 성장이 더디신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되 함께 지어져 가라는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었는지, 누가 세상의 염려로 신앙이 자라고 있지 못한지, 누가 죄의 유혹을 받아 사망에 들어서려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소중하지 않은 성도님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 안에 참된 제자로 함께 자라가기를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건축가가 되셔서 지금도 이 땅에 아름다운 아현중앙교회를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성전의 건축재료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잇돌 삼아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아보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며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의 거룩한 뜻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 일 조 헌 금 (강정훈 황인선) (신창우 김영미) (김명중 장계순) (신일철 이태영) 이연순 (조규성 정미애) 조순임 조혜자 (차상옥 석진숙) 최소연

월 정 헌 금 (박세광 구향모) (신웅식 최진여) (심영관 문미영) 유영순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전교인수양회를 통해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본수 송명희) : 전교인수양회로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권혁성 손양민) :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준수 최희성) : 전교인수양회를 가평우리마을에서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김순여) : 전교인수양회를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미광 : 딸 지영이와 손녀들과 수양회에 참석하여 감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준자 : 전교인수양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송재용 홍영기) : 가족과 함께 전교인수양회에 참석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창우 김영미) : 전교인수양회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심대섭 류은숙) : 전교인수양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대형 최미숙) : 전교인수양회를 통하여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수용 인정구) : 전교인수양회를 통하여 아현중앙이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황한규 유경희) :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푸시는 하나님. 전교인수양회에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최태성 김지애) :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용국 노복순) : 전교인수양회를 통해 은혜주시고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정희A :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가평 땅에서 수양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시간마다 우리들을 보듬어주세요. 삶의 현장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주일성수하게 해주시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손들 믿음으로 주일성수하게 해주시고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구용연 : 하나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정행 전차월)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호 문그림 김이안) : 가족과 성도분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 : 사랑하는 딸 셀라나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현 : 전교인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석순 : 하나님 온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우와 함께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성옥 :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송양근 조혜선) : 은혜로운 수련회에 감사드립니다.

(신승대 오은정) :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영애 : 하나님 지으신 세계 누리며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엄영숙 : 아현중앙공동체를 축복해주셔서 전교인수양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혜순 : 수련회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금복 : 전교인수양회(WITH)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혜리 : 전교인수양회를 은혜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윤순례 : 하나님 여기에 온 우리 감사드립니다.

윤해자 :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주시고 건강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범 차진영 혼민)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기화 : 전교인수양회에 유와 같이 잘 듣고 잘 머물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서구 김정희) : 온 가족 모두 전교인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성호 강숙희 이지수) : 사랑하는 딸, 지수와 함께 전교인수양회에 오게 하셔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순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학 백현애) : 주님의 은혜 안에 전교인수양회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실 황문연) :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호순 : 주님 아름다운 가평우리마을에서 전교인수양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규성 정미애) : 주님 1박2일에 전교인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조순임 : 전교인수양회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은지 :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일현 조운정) :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현, 윤정이의 미래를 인도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차형준 김미경 은서 은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태복수 :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합예배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 명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박기순 (곽찬웅 한애선) 이진숙 최난주 (장춘기 문정미) (최명수 김다유)

창립70주년(전교인수양회) 박기순 (김명훈 김수미) 김미광 (김주인 김춘강) 조상현 (황한규 유경희) (권호진

정장미) (김성옥 이현희) 류기녀 (이영호 정혜미) 임명숙 전차월 총여성교회

2여성교회 3여성교회 4여성교회 5여성교회 8여성교회

창립70주년(초준) 총여성교회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지난 주 전교인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총 목자모임 : 오늘 오후 2시,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9월 임원회 : 교회사무실에서 자료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모임안내

- 한나목장 : 오늘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충남녀선교회 주관 추석맞이 사랑나눔바자회 : 20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 교우동정

- 환영 : 교회 다문화 선교와 교회학교 영어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Abraham Gerald Napitupulu)목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GIT 박사과정, 인도네시아)께서 부임하셨습니다.
- 감사 : 오늘 점심식사를 후원해 주신 이재화 홍석은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한나회를 후원해 주신 고광섭 권사, 이윤진 성도께 감사드립니다.
- 입원 : 장은숙 권사께서 구로고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입원 : 윤정환 권사께서 굿시아케어링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서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7일(주일)

■ 금요성령집회(9월 18일)

찬	양	매나렘 찬양단
설	교	“A.S.K !!” (누가복음 11:5-13)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9월 20일)

대 표 기 도	이 평 식 장로
성 경 봉 독	조 미 숙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4초원
- 다음 주 : 3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